

죽음을 기억하라

07/28/2024

로마시대에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뒤에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중세의 수도승들은 서로 만나면 나누는 인사말이 ‘메멘토 모리’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회사들은 노화 방지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정복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일례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기술 기업가는 하루에 111개의 알약을 먹고, 정확한 수치의 음식을 먹고 필요한 양의 운동을 하며 신체 나이를 줄여가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신의 영역이었던 죽음이라는 영역마저도 인간이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과연 죽음을 정복한 인류는 과연 행복이라는 대전제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애플사의 창시자이자 চে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던 스티브 잡스는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도움이 되었던 도구이다. 왜냐하면 외적인

기대, 자부심, 창피함 또는 실패의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언젠가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이미 가식의 옷을 벗고 나체로 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죽음이라는 절박함을 맞을 때 우리는 삶의 새로운 측면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죽음의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이 적힌 그 책장이 닫힐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게 될까요. 비록 죽음의 현실에 살고 있지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단지 이 생의 원동력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으니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살아있는 이 한 날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